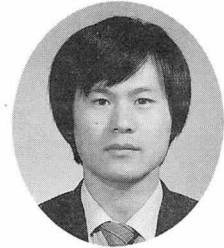


폭등하는 국제사료곡물가격, 대응책은 ?



김치영 차장
(한국사료협회)

● 폭등하는 곡물가격

지난해 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은 전세계 곡물 교역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천정부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곡가 상승의 배경은 미국의 금년도 옥수수 파종 면적의 감소와 파종후 생육기간 중의 일기불순 및 해상운임의 급상승을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국의 공급 여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산 옥수수 가격 폭등의 주요인이었던 건조기후(Hot and Dry Weather)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곡가 상승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인 곡물수급이 안정되지 않는 한, 곡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곡가파동은 그동안 기상이변과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장·단기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찾아왔으며, 대개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금번의 곡가상승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

예컨대 지난 '88년 미국 콘벨트의 대한발시에도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고, 대두 및 대두박 가격은 미국의 시카고 곡물거래소(CBOT) 개장이래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폭등세를 보였으나, 당시의 곡가 파동의 여파는 길지 않았고, 오히려 사료용 소맥이나 중국산 옥수수의 수입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금번의 곡가파동은 미산 옥수수의 대체원료인 중국산 옥수수와 사료용 소맥의 공급 부족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여기에 미국의 기상이변과 함께 장기적인 안정세에 놓여있던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이같은 수급불안정 요인들이 단기에 그칠 것 같지 않자 이같은 와중에서도 CBOT의 단기 투자자, 곡물메이저, 발빠른 일본의 곡물상들은 단기 투자이익과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대량 매수주문을 냄으로서 상승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몰고 왔다.

우리나라의 곡물 구매기관 및 구매단체에서도 이같은 강세국면을 예견하고 어느 정도 조기구매를 통해 금년도 소요물량을 확보해 나갔으나,

이같은 강세 현상이 장기화 됨에 따라 향후 수요에 대한 구매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한 채 사태의 추이만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적으로는 옥수수 상승시 사료용 소맥이나 대맥, 수수, 호밀 등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나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 품목의 수급은 더욱 불안하다.

수수의 경우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수단 등에 의해 생산되어 약 600만톤 이상이 교역되었으나, 최근에는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들의 수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오히려 호주의 경우는 2~3년간 지속된 한발로 인하여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20~30만톤을 수입해야 하는 수입국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저급 소맥들은 EU, 캐나다, 호주 등이 연간 수백만톤씩 수출하였으나, 지난 해부터 이들 국가의 사료용 소맥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이 끊긴 상태이며, 과거에는 저급 소맥(Off Grade)으로 분류되던 사료용 소맥조차도 브렌딩을 통해 식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금년도에 기히 계약된 사료용 소맥조차 공급이 불이행되고 옥수수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호밀이나 대맥 등이 옥수수를 일부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들 품목의 경우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효과적으로 옥수수를 대체할 수가 없다. 예컨대 금년도 EU산 호밀의 경우 옥수수 가격의 급등 이후 우리나라가 조기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장기 저가 구매에 성공하였으나 그후 중국의 대량구매 이후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자 결국은 옥수수로 대체 공급된 바 있다. 사료용 대맥 역시도 옥수수와 소맥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수요를 촉발시켜 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거기에도 금년부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각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가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표 1〉 주요 사료곡물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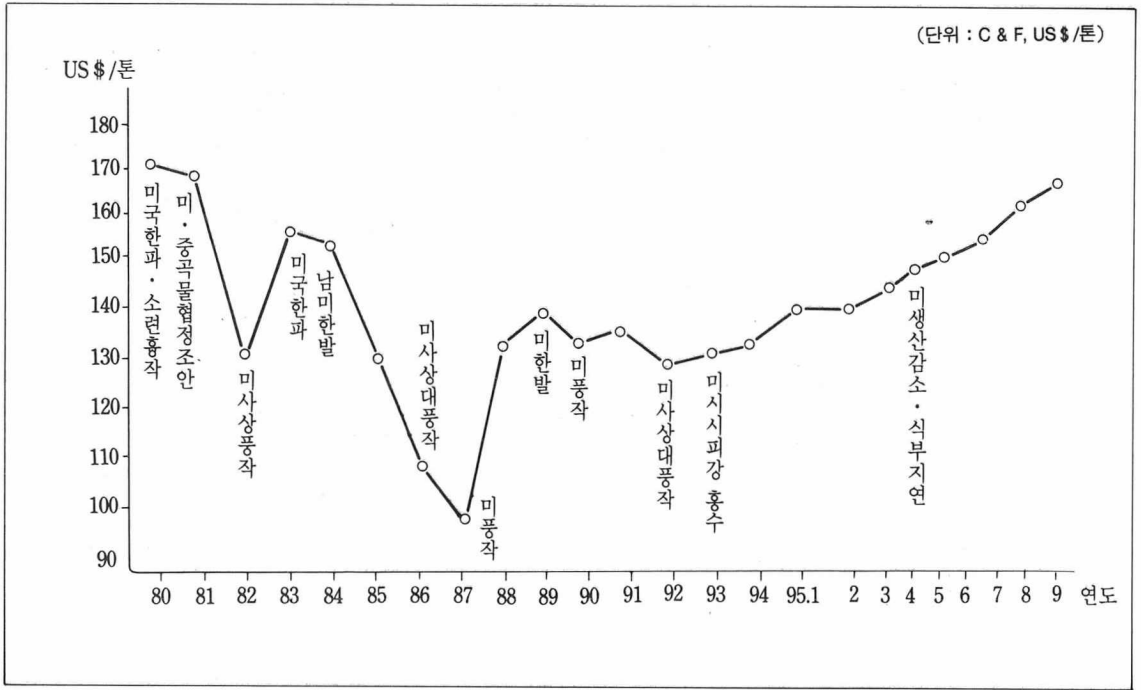
(단위 : US\$/톤)

품 목	원 산 지	'94. 12	'95. 9 현재	연말대비 (%)
옥 수 수	미 국	134	165	123
	중 국	130	-	-
수 수	미 국	131	163	124
	중 국	-	-	-
사료용 소맥	카 나 다	126	-	-
	E U	-	-	-
사료용 대맥	카 나 다	124	-	-
	E U	128	-	-
호 밀	E U	107	140	130
대 두 박	미 국(48%)	231	277	119
	미 국(44%)	-	267	-
	중 국	195	-	-
	브 라 질	213	245	115
	인 도	215	230	110
채 종 박	카 나 다	156	165	106
	인 도	110	114	104
	중 국	120	-	-
면 실 박	중 국	135	140	104
소 맥 피	인도네시아	109	130	119
	스 리 랑 카	-	-	-
	아르헨티나	-	-	-
	카 나 다	127	154	121
G S P	카 나 다	92	118	128
타 피 오 카	태 국	136	-	-
알팔파(펠렛)	미 국	120	150	125

이같은 곡가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미 금년도 8월 1일부터 곡물 수송시 정부가 보조하던 철도 수송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캐나다의 주종 수출 품목이었던 사료용 소맥, 대맥, 알팔파 등의 수출가격이 톤당 15~20불 가량 상승하게 되었고, 미국의 철도 운송회사들도 금년들어 톤당 약 2~3불의 운송비를 인상시켰다.

결국 이상과 같은 최근의 국제곡물시장의 동향은 과거 주로 선진 농업국과 일부 개도국들에 의해 과점하에 놓여 있던 공급구조를 미국 중심의 독점구조로 전환시켜 구매자 중심시장(Buyer's Market)에서 판매자 중심시장(Seller's



〈그림 1〉 연도별 미산 옥수수 시세 동향

market)으로 전환시켜 가고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응책은 ?

국제곡물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 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갈수록 미국의 시장 지배력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기상이변이나 농업 정책의 변화, 항만이나 해상 운송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격의 등락은 물론 수입국의 사료 수급이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양의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수출국의 공급 불안정에 따른 사료수급의 불안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지금과 같이 점차 단일 국가,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위험성

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80년대초부터 사료곡종을 옥수수 단일 품목에서, 수수, 사료용 소맥, 호밀 등으로 다양화 해나가고, 수입선도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으로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자연적인 기상조건과 공급 국가들의 사정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수입국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승국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호밀, 보리 등 대체원료 수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격 하락시 장기계약 등을 통해 중국, 일본 등 대량 구매처의 선취매에 앞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좋은 예로 금년도 EU산 호밀의 장기계약(Long term Contract)은 일부 옥수수로 대체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원료의 저가 구매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최소 시장접근(MMA) 물량인 14,



150M/T의 사료용 대맥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제시되었던 사료용 대맥 가격은 한정된 수량에다, 혼적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C & F 135.75 불로 당시 시장가격인 160불대에 비해 크게 낮게 낙찰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수출촉진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 때문으로, 아직도 EEP 수량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료용 대맥에 대한 정부측의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다채널화 되어 있는 구매방식은 경쟁적인 저가 구매를 유도함에 있어서 약세시장(Bearish market)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강세시장(Bullish Market)에서는 가격하락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상승국면에서는 단기적인 구매가격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견이 요구된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선물거래와 축협 및 개별 구매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Basis 거래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협회와 같이 많은 회원사의 희망 구매량을 받아 공동구매하는 입장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직접적

인 참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구매와는 별도로도 개별기업들이 가격상승에 대비한 헷징의 수단으로서 선물거래에 대한 참여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사료곡물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배합사료 가격을 안정화시켜 축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축산선진국 및 경쟁국과 비교하여 배합사료 원가절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용 원료에 대한 관세의 감면과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확대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료용 대맥 등에 대한 수입제한도 조속히 해제하여 원료의 선택폭을 확대시켜 주고, 현재 갈수록 높아져 가는 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의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은 점차 우리나라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장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축산·사료산업이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책임지는 민족생존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